

이규상(李奎象)의 「강상설」(江上說)과 「서호죽지가」(西湖竹枝歌)에 대하여

안준석*

1. 머리말
2. 「강상설」(江上說)
3. 「서호죽지가」(西湖竹枝歌)

1. 머리말

일몽(一夢)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은 『병세재언록』(并世才彦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다. 최근 그 후손가에 소장된 초고본(草稿本) 『일몽고』(一夢稿)가 학계에 소개되었는데, 이 초고본에는 간본 문집에 누락된 작품이 다수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 이 글에서 소개할 「강상설」(江上說)과 「서호죽지가」(西湖竹枝歌)는 초고본 『일몽고』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강상설」은 이규상이 한강 가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한강의 지리, 누정(樓亭), 물고기, 배, 풍속, 촌락 등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전해들은 여러 가지 설화와 풍문을 다채롭게 기록한 산문이다. 「서호죽지가」는 18세기 중후반 서호(西湖) 일대의 풍속과 세태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한시이다. 두 자료는 18세기 한강 지역의 삶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안준석, 「이규상(李奎象)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과 입전 의식」, 서울대 석사논문, 2015, 6-21면.

2. 「강상설」(江上說)

「강상설」은 이규상이 1768년에 창작한 산문으로, 초고본 『일몽고』 문고(文稿) 병(丙)²⁾에 수록되어 있다. 「강상설」의 전문(全文)을 단락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무자년(戊子年, 1768) 여름 우리 집은 인천 관아에서 서강(西江)으로 이사하였는데 구 능운군(具綾雲君)의 복파정(伏波亭)을 빌려서 우거(寓居)하였다. 나는 병으로 출입이 어려워 날마다 강 마을의 뱃사람을 불러 들은 바를 물을 뿐이다.³⁾

1768년 이규상의 부친 이사질(李思質, 1705-1776)이 인천부사(仁川府使)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규상 일가는 인천에서 한양의 서강(西江)으로 이사하였다. 이사질은 능운군(綾雲君) 구성필(具聖弼, 1695-1775)의 별서(別墅)인 복파정(伏波亭)을 빌려 우거하였는데, 당시 거자(擧子)의 신분으로 부친의 경제력에 기대어 생활하였던 이규상 또한 복파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복파정은 능평군(綾平君) 구일(具鎰, 1620-1695)이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을 흠모하여 지은 정자다. 이규상의 집안은 능성구씨(綾城具氏) 집안과 인척 관계였으므로⁴⁾ 복파정을 빌려서 거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강 사람들은 ‘팔강(八江)’을 일컫는데, 동으로 두모포(豆毛浦)에서 시작하여 뚝섬[蘓島], 서빙고(西氷庫), 새남터[塞藍墟], 용산(龍山), 마포(麻浦), 서강(西江), 덜머리[加首]라고 한다. 그 사이 동강(東江)에는 송파강(松坡江)이 있고 삼전나루가 있으며, 남강(南江)에는 동작강(銅爵江)이 있고 한강(漢江)과 노석강(露石江)이 있다. 서강에는 양화나루가 있고 나루 아래는 행주(幸洲)인데, 서강은 웅마외(熊馬驪)와 조강(祖江)을 지나 마침내 바다로 들어간다. 서강에는 밤섬[栗島]과 여의도(汝矣島)가 있다.⁵⁾

2) 초고본 『일몽고』의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안준석, 앞 논문, 6-12면 참조.

3) “戊子夏, 余家自仁川衙移西江, 借具綾雲君伏波亭, 居停. 余病不出入, 惟日招江戶船人, 問所聞.”(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4) 이규상의 아우 이규위(李奎緯, 1731-1788)가 구선경(具善慶, 1715-1759)의 장녀와 혼인하였다. 구성필은 구선경의 숙부(叔父)이다.

한양 지역의 한강을 보통 경강(京江)이라 부른다. 경강은 삼강(三江), 오강(五江), 팔강(八江), 구강(九江) 등 구역화된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규상은 경강을 여덟 구역으로 나눈 팔강을 언급하였다. 두모포(豆毛浦)는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응봉 기슭을 이른다. 두모포에 동빙고(東氷庫)가 있었고, 서빙고(西氷庫)는 지금의 서빙고동 둔지산(屯智山) 기슭의 강변에 있었다. 새남터[塞藍墟]는 이촌동의 한강변에 있었던 모래사장이다. 용산은 마포대교 동북쪽에 있는 야트막한 봉우리를 이르는데, 조선시대에 용산이라 하면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지역을 가리켰다. 마포는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쯤을 가리키고, 서강(西江)은 서강대교부터 서쪽으로 와우산(臥牛山) 기슭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흔히 잠두봉(蠶頭峯)으로 불리는 덜머리[加首]는 당산철교 북단의 절두산 성지에 있던 봉우리로,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동강(東江)은 한남대교와 천호대교 사이의 한강이다. 1925년 대홍수 이전까지 한강의 본류가 잠실섬 남쪽으로 흘렀는데, 이를 송파강이라 하였고 그 곁에 삼전나루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한강이라 하면 특히 한남대교 인근만을 좁혀서 이를 때가 많았다. 그 서쪽 동작역 앞의 강을 동작강 혹은 동호(銅湖, 桐湖라고도 적는다)라 불렀으며, 그 서쪽 노량진 부근의 강을 노석강, 혹은 노량, 노호(露湖, 鷺湖라고도 적는다)라고 하였다. 한강이 임진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가는 지역을 일러 조강(祖江)이라 하였고, 웅마외(熊馬隈)는 김포 지역으로 추정되나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서강 가운데에 밤섬과 여의도가 있는데 이 두 섬은 물이 불면 합쳐지는 큰 섬이었다.⁶⁾

[3] 덜머리의 망원정(望遠亭)과 귀래정(歸來亭), 서강의 안류정(安流亭)과 족한정(足閑亭), 현석(玄石)의 근수정(近水亭)·죽리관(竹裡館)·영파정(映波亭)·양의정(兩儀亭)·만휴정(晩休亭)·창랑정(滄浪亭)·토정(土亭)고(故) 이토정(李土亭)의 옛터, 마포의 세심정(洗心亭)·수명루(水明樓)·음청루(挹淸樓)·벽파정(碧波亭), 이들

5) “江人稱八江，自東豆毛浦始之，曰蘼島，曰西氷庫，曰塞藍墟，曰龍山，曰麻浦，曰西江，曰加首。其間，東江則有松坡江，有三田渡；南江有銅爵江，有漢江，露石江。西江有楊花津，津下幸洲，歷熊馬隈及祖江，乃入海。西江有栗島，汝矣島。”(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6) 이상 경강(京江)의 다양한 지명에 대한 설명은 이종묵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술하였다.

은 용산 이서(以西)의 정사(亭榭)이다.⁷⁾

조선시대 한강 일대에는 이름난 누각과 정자가 즐비해 있었다. 위 단락은 용산 이서(以西)의 누정(樓亭)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다. 희우정(喜雨亭)이라고도 불리는 망원정(望遠亭)은 양화나루 동쪽에 있던 정자인데, 홍수로 소실되었다가 1989년에 복원되었다. 귀래정은 김광욱(金光煜, 1580-1656)이 행주산성 기슭에 세운 귀래정이 잘 알려져 있으나, 이 글에서 말한 귀래정은 덜머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김광욱의 귀래정과는 별개의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서강의 안류정(安流亭)은 이형만(李衡萬, 1711-?)의 별서로 당인동에 있었고, 이옥(李沃, 1641-1698)·이만부(李萬敷, 1664-1732) 부자(父子)가 주인이었던 족한정(足閑亭)은 신정동에 있었다. 현석(玄石)의 근수정(近水亭)은 19세기에 한장석(韓章錫)의 사돈인 홍종서(洪鍾序)가 주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죽리관(竹裡館)은 능풍부원군(綾豊府院君) 구인기(具仁璽, 1597-1676)가 세운 별서인데 후에 홍주국(洪柱國, 1623-1680), 김이교(金履喬, 1764-1832), 신작(申緯, 1760-1828) 등이 살았다. 창랑정(滄浪亭) 곁에 있었던 영파정(映波亭)은 그 주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창랑정은 금평도위(錦平都尉) 박필성(朴弼成, 1652-1747)이 세운 별서다. 양의정(兩儀亭)은 양의당(兩宜堂)을 말하는 듯 한데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이 권필(權鞮, 1569-1612)과 자주 시회(詩會)를 가진 장소이다. 만휴정(晩休亭)은 이호민(李好閔, 1553-1634)과 그 아들 이경엄(李景嚴, 1579-1652)이 소유했던 별서다. 토정(土亭)은 잘 알려져 있듯 이지함(李之菴, 1517-1587)의 호가 된 곳이다. 마포의 세심정(洗心亭)은 은천군(銀川君) 이찬(李攢, 1421-1481)이 세운 정자인데 19세기에는 조두순(趙斗淳, 1796-1870)과 홍직필(洪直弼, 1776-1852) 등이 살았다. 수명루(水明樓)는 심유(沈攸, 1620-1688)가 주인이었는데 용산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읍청루(挹淸樓)는 용산의 별영(別營)에 있던 이름난 누각이고, 벽파정(碧波亭)은 청평위(淸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1683)의 별서다.⁸⁾

7) “加首望遠亭歸來亭，西江安流亭，足閑亭，玄石近水亭，竹裡館，映波亭，兩儀亭，晩休亭，滄浪亭，土亭，故李土亭古城，麻浦，洗心亭，水明樓，挹淸樓，碧波亭，此龍山以下亭榭。”(李奎象，『江上說』，草稿本 『一夢稿』文稿(을))

8) 이상 누정(樓亭)에 대한 설명은 이종묵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술하였다.

[4] 물고기는 송어속명(俗名)은 수어(秀魚), 잉어, 붕어, 뱀어, 쏘가리, 메기, 가물치, 공지어(孔之魚), 사치어(沙置魚), 동노어(冬老魚), 뱀장어, 사침어(沙沈魚), 자가사리, 기을이어(其乙伊魚), 강복어, 재첩, 참게, 자라가 있으니, 이들은 강에 사는 생물의 이름이다.⁹⁾

한강에는 잉어, 붕어, 뱀어, 쏘가리, 메기, 가물치, 뱀장어와 같은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송어나 강복어도 서식하였다. 사치어(沙置魚)와 사침어(沙沈魚)는 모래무지나 무래주사와 같은 고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동노어(冬老魚)와 기을이어(其乙伊魚)는 어떤 고기인지 미상이다.

[5] 배는 큰 것을 원장이(遠藏伊), 그 다음을 당도리[唐突伊, 그 다음을 독죽선(獨竹船), 그 다음을 나룻배[津船, 그 다음을 낚싯배[釣船, 그 다음을 사선(絲船)이라 한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의 배는 길이가 길지만 넓지 않아 강과 여울에는 유리하나 바닷길은 다니지 못한다. 서울의 배와 영남·호서의 배는 모양이 같으니, 꽤 넓고 뱃전이 높다. 호남의 배는 뱃전이 낮다.¹⁰⁾

한강을 왕래하는 배에 대하여 설명한 단락이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에, 우리나라에서 큰 배를 ‘만장이(漫藏伊)’라 하고 바다에 나가는 배를 ‘당도리(唐突伊)’라 한다는 말이 보이는데,¹¹⁾ 만장이가 곧 원장이가 아닌가 한다. 원장과 당도리는 모두 두 개의 뿔대를 세운 큰 목조선이다. 독죽선(獨竹船)은 비록 크기가 작지만 수백 섬의 곡식을 실을 수 있다는 말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보인다.¹²⁾

9) “魚則鱸魚(俗名秀魚, 鯉魚, 鮒魚, 白魚, 鰻魚, 鮎魚, 鱧魚, 孔之魚, 沙置魚, 冬老魚, 吃長魚, 沙沈魚, 者其沙里魚, 其乙伊魚, 江豚魚, 小黑蛤, 眞蟹, 蟹, 此江族之名也.”(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10) “船則大者曰遠藏伊, 其次曰唐突伊, 其次曰獨竹船, 其次曰津船, 其次曰釣船, 其次曰絲船. 東峽船, 長長而不廣, 利於江灘, 不能行於海道. 京船, 嶺南·湖西船, 同樣, 頗廣而高舷. 湖南船較低矣.”(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11) “我國小船曰傑傲, 津船曰捏傲, 大船曰漫藏伊, 漕船曰松風排, 出海曰唐突伊, 上流曰物遇排, 關西稱船口馬上伊, 制雖各異.”(朴趾源, 『還燕道中錄』, 『熱河日記』, 『燕巖集』 卷13)

12) “又聞關西地土船, 號爲獨竹船者, 體樣雖小, 亦足以容載數百石, 利於駕海, 使用甚便.”(『承政

[6] 용산부터 이서(以西)에 호조(戶曹)에서 별도로 경영하는 광흥창(廣興倉)과 삼지창(三枝倉)이 있다. 동강(東江)은 강원도와 접해 있으므로 이익이 뿔나무에 있고, 서강은 바다와 접해 있으므로 쌀, 소금, 생선, 젓갈의 이익이 모여든다. 조운(漕運) 또한 서강을 경유하니, 서강은 곧 경성의 명맥(命脈)이다.¹³⁾

용산 이서(以西)에 위치한 관창(官倉) 및 한강의 수운(水運)에 대하여 기록한 단락이다. 광흥창(廣興倉)은 와우산 남동쪽에 위치한 관창이다. 삼지창(三枝倉)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미상이다. 조선시대 한강은 교통과 물자 수송의 주요 통로로서 조운선(漕運船)과 상선(商船)이 운집하였고, 강원도의 목재와 뿔감 또한 한강을 통해 운송되었다. 특히 마포나루는 삼남(三南)의 곡식과 서해에서 생산되는 소금, 생선, 젓갈이 집산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7] 어망(漁網)은 휘리망(揮羅網)이라 하고 조낭망(造囊網), 백어망(白魚網), 빙망(氷網), 공지어망(孔之魚網)이라 한다. 큰 낚시바늘을 잉어낚시(鯉魚釣), 삼봉낚시(三鋒釣)라 하고, 작은 낚시바늘을 철낚시(鐵釣), 침낚시(針釣)라 하고, 낚시바늘이 많은 것을 주낙(繩釣)이라 한다. 물고기를 찢러 잡는 기구를 심화(鑿花)라 한다.¹⁴⁾

그물과 낚시바늘 등 어구(漁具)의 종류를 나열하였다. 휘리망(揮羅網)은 이른바 후릿그물로, 물속에 넓게 둘러치고 버리의 두 끝을 사람이 끌어당겨 고기를 잡는 큰 그물이다. 조낭망(造囊網), 백어망(白魚網), 빙망(氷網), 공지어망(孔之魚網)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물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삼봉낚시는 갈고리가 세 갈래로 달린 낚시바늘을 말한다. 주낙은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바늘을 드리워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심화(鑿花)는 작살의 일종인 듯하다.

院日記』正祖 7年 1月 18日)

13) “自龍山以下，有戶曹別營廣興倉、三枝倉。東江則接峽，故利在柴；西江則接海，故米塩魚鹽之利。萃集。漕運亦由西江，西江卽京城命脈矣。”(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14) “漁網曰揮羅網，曰造囊網，白魚網，氷網，孔之魚網。大釣曰鯉魚釣，三鋒釣，小釣曰鐵釣，針釣，多釣曰繩釣。刺魚械曰鑿花也。”(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8] 강물은 발원지로부터 천 리를 흘러오지만 맛이 담백하고 좋아 수도병(水土病)을 다스리면 효험을 보지 않음이 없다. 물을 길어 독에 채우고 며칠이 지나면 맑고 달아져 사람이 마시기에 알맞다고 한다. 또 담병(痰病)을 치료할 수 있다고도 한다. 또 말하기를, “오대산(五臺山) 속 대통을 세워둔 곳과 인삼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약수(藥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물길이 비록 천 리지만 지류별 근원수가 뒤섞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심수(江心水)는 오대산의 본원(本淵)에서 흘러온 물이다.”라고 한다.¹⁵⁾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강이 오대산(五臺山)에서 발원한다고 생각하였다. 오대산 서대(西臺) 아래에 빛깔과 맛이 특이한 샘물이 있는데, 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특히 무거워 다른 물과 섞이지 않고 한강까지 흘러온다고 믿었다. 이 물을 우통수(于筒水)라 하기도 하고 우통수 물줄기가 한강의 한 가운데로 흐른다 하여 강심수(江心水)라고도 했는데, 궁중에서 탕약을 끓이거나 차를 달일 때 강심수를 길어다 썼다. 또한 강심수가 담병(痰病)이나 폐병, 풍토병을 다스리는 데 효험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9] 늙은 어부가 말하기를, “뚝섬과 한강(漢江) 사이에 신물(神物)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무기」[二木疑인데, 용의 족속입니다. 만약 그 근처에 그물을 던지면 대낮에도 바람과 우레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결의 중심이 용솟음쳐 올라 그물이 반드시 찢어진 채로 조각조각 올라옵니다.”라고 하였다. 두미(頭眉)와 월계(月矚)는 곧 여주(呂州)와 양근(楊根)에 있는 험한 강인데, 생산되는 물고기의 맛이 특히 좋다. 두미(斗尾)의 어부가 말하기를, “겨울철에 작은 잉어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는데, 색깔은 검붉은 빛이었고 비늘이 모두 거슬러 나 있었습니다. 얼음이 언 풀 속에 놓아두었더니 7일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신물이라 여겨 마침내 다시 놓아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복과정 앞에서 어부들이 잉어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얼음 속에서 건져올릴 때 미처 반도 올리지 않았으나 거의 1장(丈) 남짓이었다. 몸통은 말구유만큼 넓고 색깔은 눈앞에서 황금이 부서지는 듯하였다. 어부들은 두렵고 겁이 나서 또한 놓아주었다 하였다. 놓어 새끼가 때때로 양진(楊津) 부근에서 잡힌다.¹⁶⁾

15) “江水千里來源，而味淡好，治水土病，無不見效。汲水盛甕，過數日，清甘宜人云。又能治痰病云。又曰：‘發源於五臺山中筒立處人參叢在處，故能爲藥水’云。又曰：‘江道雖千里，不混派源。故江心水，是五臺之真源’云。”(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어부들 사이에서 전하는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단락이다. 한강에 이무기와 신물이 산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두미(頭眉)는 두모포와 다른데 두미협(斗帽峽)이라고 불렀다. 팔당댐 인근의 협곡 지역을 이른다. 월계(月溪)는 월계(粵溪)라고도 적는데 양수리에서 남한강을 따라 거슬러 조금 올라가는 곳에 있다. 양진은 용진(龍津)이라고도 하는데 두물머리 동쪽 북한강에 있던 나루다. 농어는 바다고기지만 민물을 거슬러 오르는 성질이 있어 지금도 한강에서 종종 잡힌다.

[10] 잠두봉(蠶頭峯)은 곧 삼지창(三枝槍)의 주봉(主峰)으로, 박읍취헌(朴挹翠軒) 무리가 노닐던 곳이다. 그 사이에 또 선유봉(仙遊峰)이 있으니, 곧 천사(天使) 주지번(朱之蕃)이 노닐던 곳이기 때문에 ‘선유봉’이라 이름한 것이다. 물속의 큰 바위에 주 천사가 쓴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삼지창 고지기는 세습한 자이다. 속전(俗傳)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임진왜란 때 오직 삼지유(三枝庾)만 잃은 것 없이 잘 지켰기 때문에 난이 평정된 후 논상(論賞)할 적에 삼지유를 지킨 자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고지기는 자손들이 대대로 그 직임을 물려받길 원하였으므로 마침내 창고씨(倉庫氏)로 삼았다. 근세에 삼지창이 총융사(摠戎使)로 소속되면서 총융사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그 임무를 맡기고자 했으나, 고지기가 관아에서 발행한 증명서 속에서 옛 사적을 찾아 제출하여 마침내 직임을 빼앗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와우산(臥牛山)이란 광흥창의 주봉이다. 지관(地官)은 말하기를, “광흥창의 부유함은 와우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¹⁷⁾

잠두봉(蠶頭峯)은 읍취헌(挹翠軒) 박은(朴聞, 1370-1422)이 이행(李荇, 1478-1534), 남근(南袞, 1471-1527)과 함께 그 아래에서 넷놀이를 하면서 시회(詩會)를 가진 곳이다. 선유봉(仙遊峰)은 오늘날 선유도 공원에 있던

16) “老漁曰：‘蠶島、漢江之際、有神物。名曰『二木疑』，是龍族。若有投網於其近處，則起風雷於白日。不然，波心洶沸，網必裂片片出’云。頭尾月溪，即呂州楊根之險江，產魚味特好。斗尾漁者曰：‘冬月嘗捉一小鯉，色殷紅，鱗皆逆。付置水草中，七日不死。人皆爲神，遂復放’云。伏波亭前，漁人嘗捉一鯉，拔於水中，未半拔，幾一丈餘。體廣如馬槽，色如黃金碎於視眼。衆漁俱憚，亦放之云。鯉魚子，時捉於楊津之際。”(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17) “蠶頭峯，即三枝倉主峰，朴翠軒輩所遊地也。其間又有仙遊峰，即朱天使之蕃所遊地，故名曰仙遊峰。水中巨石，刻朱使書字云云。三枝倉庫直者，世襲者也。俗傳壬辰倭亂，惟三枝庾以守無失，論賞於平難後，問所願於守者，庫直人則願以子孫世襲，故遂爲倉庫氏。近歲倉屬摠戎使，使欲替他人爲其任，庫直搜出故蹟於完文中，使竟不能奪之云。臥牛山者，廣倉之主峰也。地家謂：‘倉之富，緣於牛山’云。”(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붕우리인데 원래는 섬이 아닌 바위 붕우리였다. 명(明)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 1558-1624)이 이곳을 유람하다가 암벽에 '지주'(砥柱) 두 글자를 새겼다는 설이 전하는데 이종성(李宗誠, 1692-1759)의 글씨라고 한 문헌도 있다. 삼지창 고지기의 일화는 당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11] 뗏목이란 나무를 배열하여 칩닝쿨로 묶어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사람이 앉는 것이다. 오직 물결을 따라서만 갈 수 있고 물결을 거슬러 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풍파로 인한 곤액은 없다고 한다. 모든 배는 운행할 때에 바람으로 향배를 정하니, 뱃사람들은 낮에는 운기(雲氣)로 풍향을 점치고 밤에는 별빛으로 풍향을 점친다고 한다. 순풍이 불 때는 돛을 걸고 역풍이 불 때는 돛을 내린다. 역풍이 불 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람이 반드시 배의 돛을 빙글빙글 돌게 하여 배를 표류시키니, 이를 이름하여 '환질(環迭)'이라고 한다. 큰 배는 반드시 후미에 작은 배를 매는데, 이름이 급수선(汲水船)이다. 뱃사람들이 전하기를, '왜선(倭船)과 중국선(中國船)은 내부에 콩가루와 찧가루를 발라 곧바로 배 안에 물을 싣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는 오직 두 대의 돛만 세우는데, 다른 나라의 배는 돛이 서너 대입니다.'라고 한다.¹⁸⁾

뗏목의 생김새와 운행 원리, 뱃사람들이 풍향을 점치는 법, 급수선(汲水船)의 존재, 왜선(倭船) 및 중국선(中國船)과 조선 배의 차이점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목조선의 판자를 연결하는 부분에 백회(白灰)나 콩기름 등을 바르면 물이 들어오는 틈새를 막을 수 있다. 왜선(倭船)과 중국선(中國船)이 이러한 방법을 조선보다 많이 사용한 듯하다.

[12] 조운할 때 뱃사람들은 반드시 쌀을 훔치고 그 대신 물로 채운다. 가령 한 섬의 쌀에서 한 말의 쌀을 꺼낸 다음 즉시 한 사발의 물을 섞으면, 하룻밤을 경과하면서 쌀이 불어 그 수를 채우게 된다. 조령(朝令)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한다.¹⁹⁾

18) “筏者，排木貫葛，浮於水上，上坐人。惟行於順流，不能逆流而行。然無風波之厄云。凡船行以風爲向背，船人晝則以雲氣占風，夜則以星光占風云。順風掛帆，逆風撤帆。逆風逆流，必環轉船帆而放船，名曰環迭。大帆必尾係小舟，名曰汲水船。船人傳倭船及中國船，裡塗太末灰末，直盛水於船內。我國船，惟建二柄帆，他國船則三四柄帆云。”(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19) “漕運時，船人必偷米，充其代以水。假令一石米，出一斗米，卽和一沙鉢水，則經一夜，潤充其

[13] 강의 풍속은 다른 촌락과 차이점 있으니, 바로 쌀을 찻는 일이다. 쌀을 찻을 때 속칭 ‘절구(截臼)만 쓰고 속칭 ‘방아[放下]라는 것의 경우 옛날부터 두지 않았다는데, 무얼 꺼리는 게 있어 그러는지 모르겠다. 강가에 자라는 나무로는 버드나무와 가죽나무가 많다.²⁰⁾

[12]는 조운선의 뱃사람들이 세곡(稅穀)을 횡령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른바 ‘화수’(和水)라는 수법이다. ‘화수’는 세곡에 물을 뿌려 두량(斗量)을 불린 다음 불어난 양만큼 세곡을 횡령하는 부정행위이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했으나 그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 [13]은 절구만 쓰고 방아를 쓰지 않는, 다른 촌락과 변별되는 강마을의 독특한 풍속을 기록하였다.

[14] 뱃사람이 말하기를, “사면풍(四面風)이란 하루 동안 사방의 바람이 연이어 부는 것입니다. 이를 구풍(颶風)이라 하는데, 배를 운행할 때 가장 꺼립니다. 그 다음은 남풍이니, 남풍은 대개 물길의 급함을 북돋우고 또 크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청백 빛이고 파도가 잔잔한데, 중국 바다는 짙은 검은 빛이고 파도가 거칠고 큼니다. 우리나라 바다 가운데 물길이 험한 곳은 곧 인천(仁川)의 월미(月尾), 삼남(三南)의 칠산해(七山海)·흑산해(黑山海)·제주해(濟州海), 황해도(黃海道)의 철산해(鐵山海)·장산곶[長山串]·등산곶[登山串]입니다.”라고 하였다. 해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은 곧 해주(海州)와 연평(延平) 앞바다인데, 물고기의 맛이 가장 기름지다고 한다.²¹⁾

뱃사람에게서 들은 바닷바람과 바닷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단락이다. 뱃사람들이 항해할 때 꺼리는 바람의 종류, 우리나라 바다와 중국 바다의 차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물길이 험하기로 이름난 곳과 해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이 언급되어 있다.

數, 朝令雖嚴禁, 莫之防云.”(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20) “江俗有異於他村者, 卽春米事也. 春只用俗稱截臼, 若俗稱放下者, 自古不設云, 未知有何忌而然也. 江樹, 柳與假竹木, 多有也.”(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21) “船人曰: ‘四面風者, 一日之間, 連吹四方風也. 此謂颶風, 最忌於行船. 其次南風, 南風, 蓋挑浪之急, 且大揚也. 我國海, 色靑白而浪細; 中國海, 色深黑而浪轟大. 我國海之險道, 卽仁川月尾, 三南之七山海·黑山海·濟州海, 黃海道之鐵山海·長山串·登山串’云. 海族之產饒處, 卽海州·延平海, 而魚味最腴云.”(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15] 용산 이동(以東)의 마을은 이름을 용산이라 한다. 마을 안에 조강서(趙江西)의 정각(亭閣)이 있고, □포(□浦)에 김 교관(金教官)의 정각이 있다. 새남터촌(塞藍墟村), 노석촌(露石村), 흑석촌(黑石村), 동작촌(銅爵村), 마분촌(馬墳村), 잠일촌(蠶逸村), 서빙고촌(西氷庫村), 점촌(店村), 보광촌(寶光村), 한강촌(漢江村), 두모포촌(豆毛浦村), 무수막촌(無愁幕村), 신촌(新村), 뚝섬촌(蠶島村), 신천(新川)의 잠일촌(蠶逸村)이 있다. 흑석에는 송판서(宋判書)의 정자가 있고, 동작에는 조판서(趙判書)의 정자가 있다. 점촌(店村)에는 모한정(慕閑亭)과 대한정(大閑亭)이 있고, 두모포에는 왕자의 집, 홍판서(洪判書)의 정자, 수진궁(壽進宮) 및 그 정자가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동강은 인가의 성대함이 서강에 미치지 못하고, 서강의 인가는 마포만큼 조밀(稠密)한 곳이 없다. 강 사람들은 날마다 이익을 피하기를 일삼기 때문에 전혀 선한 풍속이 없다. 서울 사람들은 이들을 천시하여 ‘강가에 사는 놈[江者]’이라고 하고, ‘강가에 사는 사람[江人]’이라고 하지 않는다. 광흥창 아래에 사는 고씨(高氏) 일족은 모두 넉넉하게 먹고산다고 한다.²²⁾

한강변의 촌락을 나열하여 기록하였다. ‘조강서(趙江西)는 강서현령(江西縣令)을 지낸 조정신(趙正紳, 1660-?)을 말한다. 용산에 조정신의 강사(江榭)가 있었다. ‘김교관(金教官)은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형인 김준행(金峻行, 1701-1743)을 말한다. 김준행은 내시교관(內侍教官)을 지냈고 용산에 그의 정사(亭榭)가 있었다. 송판서(宋判書), 조판서(趙判書), 홍판서(洪判書)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미상이다.

“강 사람들이 이익을 피하기를 일삼는다”라고 말한 것은, 18세기 경강변에 상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라 생각된다. 광흥창 아래에 사는 고씨(高氏) 또한 상업으로 큰 부를 이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이규상의 「강상설」은 18세기 한강 유역의 생활사와 관련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

22) “龍山以上村, 名曰龍山. 中村有趙江西亭閣, 缺浦有金教官亭閣. 塞藍墟村, 露石村, 黑石村, 銅爵村, 馬墳村, 蠶逸村, 西氷庫村, 店村, 寶光村, 漢江村, 豆毛浦村, 無愁幕村, 新村, 蠶島村, 新川, 蠶逸村. 黑石有宋判書亭, 銅爵有趙判書亭, 店村有慕閑亭, 大閑亭, 豆毛浦有王子家, 洪判書亭, 壽進宮亭云. 大略東江人家之盛, 不及西江, 而西江之人家稠密, 莫如麻浦. 江人日事牟利, 故全蔑善俗. 京人賤號之, 曰江者, 而不曰江人也. 廣倉之底居高姓人族, 箇箇饒食云.”(李奎象, 「江上說」,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3. 「서호죽지가」(西湖竹枝歌)

「서호죽지가」는 7언 절구 형식을 취한 총 24수의 연작시로, 초고본 『일몽고』 제2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정서를 주로 노래하였다. 제6수부터 제11수까지는 서호 일대에 성행하던 무속(巫俗)을 그렸다. 제12수는 부녀자들의 복식 유행을 읊었고, 제13수부터 제19수까지는 당시 새롭게 유행하던 음악을 다루고 있다. 제20수부터 제24수까지는 뱃사람들의 뱃노래, 장사꾼들의 대화, 늙은 뱃사공과 낚시꾼, 빨래하는 노파 등 서호 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호죽지가」는 뚜렷한 기준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를 자유롭게 담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구성이 다소 산만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유사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느슨하게 작품군을 이루고 있어 이규상이 서호의 어떤 모습을 특히 눈여겨보았고 또 시로 그리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서호죽지가」의 전문은 부록으로 첨부하고, 여기서는 「서호죽지가」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망부(望夫)의 정(情)과 생활의 고단함

이규상은 「서호죽지가」에서 서호 지역 서민들의 생활상과 정서를 세세하게 그려내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낙의 마음을 노래하기도 하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단면을 시로 포착하기도 하였다. 「서호죽지가」의 첫 수는 망부(望夫)의 정을 담은 작품으로 시작된다.

서호 가의 장정들 모두 배를 모니	湖上丁男盡操舟,
일 년 중 태반은 바다를 떠도네.	一年強半海中遊.
벌어들인 돈으로 큰 집 지을 수 있지만	利錢縱得起高屋,
젊은 아낙 몇 번이나 망원루(望遠樓)에 기대나.	少婦幾憑望遠樓?

(제1수)

망원루(望遠樓)는 망원정(望遠亭)을 가리키는데 이 시에서는 운자를 맞추기 위해 망원루로 표현하였다. 이 시의 제1·2구는 서호 가의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 배를 수단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은 연중 반 이상은 집을 떠나 생활해야만 하는 처지였음을 알려준다. 제3·4구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장기간 바다를 항해하여 돈을 버는 남편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젊은 아낙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시인의 시선으로 관찰한 내용을 진술한 시이지만, 부유한 삶보다 남편의 무사귀환을 더 간절히 바라는 여인의 심리가 은근하게 담겨 있다.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음 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편의 편지가 푸른 바다 끝에서 전해왔는데	夫婿書傳碧海端,
참복[參鰯] 한 꾸러미 함께 왔네.	伴來參鰯一苞團.
마을의 속언(俗言) 그대는 못 들었소	里中諺語君聞否?
마주 앉아 먹으면 고비 뿌리도 달다고.	對喫薇根亦自歡.
	(제5수)

큰 바다로 나간 남편이 아내에게 귀한 참복어를 한 꾸러미나 보내왔지만 아내는 달갑지 않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혼자 먹으면 남편과 마주 앉아 먹는 고비 뿌리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비는 고사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쓴 맛이 많이 나는 나물이다. ‘마주 앉아 먹으면 고비 뿌리도 달다’[對喫薇根亦自歡]라는 당시의 속언(俗言)을 수용함으로써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이규상이 서호를 배경으로 죽지사를 창작하면서 여인들의 망부의 정에 주목했던 것은, 이를 통해 이 지역의 고유한 민간정서를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서호 일대에는 조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무역에 종사하는 선상(船商)이 많이 거주하였고, 이들은 그 직업적 특성상 장기간의 항해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홀로 거처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이규상은 이 지역 여인들의 그러한 처지를 관찰하여 시에 담아냄으로써 서호의 특징적인 민간정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한편 「서호죽지가」는 집에 남아 기다리는 아내의 그리움뿐만 아니라, 집

을 떠나 생계를 도모하는 남성들의 고단함도 여러 편에 걸쳐 그려내고 있다. 제21수는 서호 상인들의 빈곤한 사정을 보여준다.

상인들 서로 만나 고생을 말하니	賈客相逢說苦辛,
모두 강호(江戶)에서 온 빚진 사람들이네.	盡從江戶負錢人.
만약 교궁(鮫宮)의 눈물을 대신 흘린다면	若爲替下鮫宮淚,
만 곡(斛)의 명주(明珠)로 가난을 쓸어버릴 텐데.	萬斛明珠掃去貧.

(제21수)

이 시는 가난한 상인의 처지를 읊은 작품이다. 어떤 경위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빚을 갚기 위해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교궁’(鮫宮)은 눈물을 흘리면 진주로 변한다는 인어(人魚)가 사는 바다 속의 집을 말한다.²³⁾ “만약 교궁의…….쓸어버릴 텐데” 부분은 상인의 말로 볼 여지가 있지만, 서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고사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말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대목에서는 상인들의 고된 삶에 연민을 느끼는 시인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삿대 잡고 하루 종일 배의 키를 살피느라	持篙鑿日瞰船箕,
검은 머리 뱃사공 수염이 허영게 세었네.	靑髮長年到白鬚.
사납고 파도치는 바다가 좋아서가 아니니	鰐海鯨山非獨喜,
한 식구 입에 풀칠하려면 한 사람 위태로울 수밖에.	一家糊口一人危.

(제22수)

이 시는 늙은 뱃사공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파도에 노를 저으며 평생을 다 보낸 뱃사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보인다.

23) 진(晉)나라 좌사(左思)의 『오도부(吳都賦)』 주석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左思, 『吳都賦』, 『文選』 卷5.

(2) 무속(巫俗)의 성형

「서호죽지가」는 제6수에서 제11수까지 서호 지역의 무속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작품은 다음과 같다.

서강(西江)의 제자(弟子) 얼굴이 꽃 같은데	西江弟子顏如英,
버들고리 분주히 굽으며 묘한 노래 부르네.	檉篔撚繁妙唱橫.
매양 노래 첫머리에 마노라[抹樓下]를 끌어와	每引歌頭抹樓下,
인간세상 사생(死生)의 정을 다 말하네.	摠言人世死生情.

(제6수)

이 시의 제1·2구는 무당의 외모와 행위를 묘사하였다. 버들고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동글납작한 상자인데, 무속에서 버들고리의 바닥을 시끄럽게 굽으면 그 까칠까칠한 소리가 악귀를 퇴치하고 신령을 부른다고 믿었다고 한다.²⁴⁾ 제3·4구에서는 무가 사설 첫머리에 연신 마노라[抹樓下]를 불러 와 늘어놓는 뉘두리 속에 생사(生死)의 정(情)이 담겨 있음을 말하였다. 마노라는 무속에서 신(神)의 존칭으로 쓰는 말로, ‘산신 마노라’, ‘터주 마노라’와 같은 표현이 무가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이규상은 서강의 무당이 무가(巫歌)를 부르는 모습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서호에서 굿이 벌어진 광경은 다음 작품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왜나무 그늘 드리운 곳에서 버들고리 굽고	槐陰垂處檉篔篋,
허공에 백지(白紙) 사르고 술잔 올리네.	白紙焚空薦酒觴.
“선주(船主)가 내일 아침 남해로 떠나니	船主明朝南海去,
면화(綿花)와 붉은팥이 돌아오는 주머니에 가득하길.”	綿紙紅豆滿歸囊.

(제11수)

제1·2구는 굿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다. 굿이 열

24)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下, 동문선, 1991, 227면.

린 장소는 ‘훼나무 그늘 드리운 곳’으로 나타나 있는데, 훼나무는 악귀를 쫓는다 하여 마을의 당집 근처에 심는 경우가 많았다. 무당이 백지(白紙)를 사르기도 하고 술잔을 올리기도 하는 등 굿을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제3·4구에서는 선주(船主)의 풍요로운 귀환을 축원하는 무당의 말을 삽입함으로써 현장감을 더하는 효과를 자아내었다.

나아가 이규상은 무당의 노랫가락을 수용함으로써 서호의 무속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제7·8·9수가 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제9수 아래에 시인은 주석을 달아 무가 사설을 옮긴 작품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²⁵⁾

- | | |
|---|---|
| ① 강남의 방초(芳草) 푸른빛 가득한데
마노라 오시는 길 호랑나비가 맞이하네.
술이 시내를 이루고 다리는 고기로 대신하니
원컨대 와서 묵으실 제 꽃송이에서 묵으소서. | 江南芳草綠盈盈,
樓下來程虎蝶迎。
有酒成川橋代肉,
願言來宿宿花英。
(제7수) |
| ② 가야금 복판(腹板) 동이처럼 둥근데
은행나무로 기러기발 깔고 대나무로 발(撥) 걸었네.
열두 개의 줄을 가너린 손으로 고르니
마노라가 줄마다 강림하네. | 伽倻琴腹盎同圓,
銀杏磨槽竹撥懸。
十二朱絲織手整,
抹樓來降逐絃。
(제8수) |
| ③ 성황당 밖에 삐꾸기 우니
마노라 오시는 때 봄 날씨 개었네.
문노니 새가 우는 건 무슨 뜻인가
묵은 가지에서 새 잎 돋길 재촉하는 거라네. | 城隍堂外戴勝鳴,
樓下來時春日晴。
借問鳥鳴何意否?
催教新葉舊枝生。
(제9수) |

25) 제9수 아래에 “이상 3수는 계대(契大) 노래의 내용이다”[以上三首, 皆契大歌意]라는 주석이 붙어 있어 제7·8·9수가 무가를 한역(漢譯)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계대’는 무당을 말한다. 제6수 아래에 “서울의 어린 무녀를 계대(契大)라고 일컫는데, 아마도 제자(弟子)의 와언(訛言)인 듯하다.”[京之少巫, 稱契大, 疑弟子之訛言]라는 주석이 보인다.

위 세 작품 가운데 ②와 ③은 오늘날에도 유사한 사실이 채록되고 있다.²⁶⁾ 이규상의 기록과 오늘날 채록되는 자료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우리말 노래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얼마간의 변형을 감안한다면 같은 노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은 원래 무가의 채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데, ②와 ③이 서울곳에서 진행되는 노랫가락을 한역한 작품이므로 ① 또한 서울곳의 노랫가락일 가능성이 크다. 이규상은 무당이 연행하는 노랫가락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죽지가로 창작함으로써 서호의 무속 문화를 보다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서호에서 벌어지는 곳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에서 굿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무가를 직접 삽입해 보여줌으로써 실감을 더했다면, 다음 작품에서는 굿을 구경하러 삼삼오오 모여드는 서호 지역 여인들의 모습을 담아 다른 각도에서 굿판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남터(塞攬墟) 앞에 봄 물결 잔잔한데	塞攬墟前春水平,
금성당(錦城堂) 밖에 달이 막 떴네.	錦城堂外月初生.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들 온 강가에서 나오니	明粧女伴傾江出,
꽃피는 때에 맞춰 굿이 이루어지리라.	其趁花時賽祭成.
	(제10수)

금성당(錦城堂)은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주신(主神)으로 모신 굿당이다. 서울에는 마포와 각실점, 구파발 등지에 금성당이 있었는데, 이 시의 금성당은 마포의 금성당을 말한다. 금성당에서 굿이 열리는 봄밤이 되자 강가에 거주하는 여인들이 화려한 단장을 마치고 굿 구경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인들이 온 강가에서 나왔다」[傾江出]는 표현은, ‘강을 기울여서

26) “사경가방 오시는 길에 가야금줄로 다리를 놓소 / 가야금 열두 줄인데 어느 줄마다 나리워서 / 줄 아래 덩기덩 소리 노리라고”(이상순, 『서울새남굿 신가집』, 민속원, 2011, 77면), “서낭당 빠꾸기 새야 너는 어이 슬피 우나 / 속 비신 고향나무에 새잎 나라고 우짖느냐 / 곁잎이 이슬어지면 새로 속잎 날까”(이상순, 위의 책, 284면) 이 무가는 이 책 외에도 다양한 문헌에 채록되어 있다.

금성당에 털어붓는 듯' 인과가 물렸음을 알려준다. 굿을 구경하는 인과로 서호 일대가 가득했음을 알려준다.

이규상이 서호의 풍속을 시로 기록하면서 이 지역의 무속에 각별히 주목하여 창작의 소재로 삼은 것은, 서호에 유달리 무속 문화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바다를 향해하는 상인과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많았던 지역적 특성상 서호 일대에는 무사(無事)를 기원하거나 풍어(豐漁)를 비는 무속 신앙이 발달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규상은 이러한 풍속을 시로 그려냄으로써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서호의 지역적 특색을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3) 유행의 변화

한편 『서호죽지가』에서는 당시 한양의 유행과 이를 향유하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다.

해마다 서울은 유행이 바뀌니	每歲京城時體更,
강 사람들 탐내어 얻어 힘써 서로 다투네.	江人偷得務相爭.
올봄에는 흰모시 홉치마가 유행이니	今春白苧單裳重,
장사하는 남편에게 곱고 가벼운 것 사오라 부탁하네.	囑與商夫買細輕.

(제12수)

이 시는 18세기 중후반 한양에서 어떤 스타일의 복식이 유행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모시는 올이 가늘고 고울수록 고급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가 부탁한 곱고 가벼운 모시 치마는 값비싼 옷이었을 것이다. ‘힘써 서로 다투다[務相爭]’라는 표현을 통해 유행을 추종하는 정도가 매우 강렬했음을 알 수 있다.

『서호죽지가』는 복식의 유행을 추종하는 도성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하지만, 유행하는 음악의 변화를 그리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다음의 시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 ① 악부(樂府)와 삼현(三絃)이 사람을 가장 감동시키고
 樂府三絃最動人,
 번다한 음률과 느릿한 곡조 또한 정신을 미혹시키네.
 繁音曼調也迷神.
 옛 격조가 유행과 어긋나는 것을 꺼려
 猶嫌古格違時好,
 곧바로 처량한 새 별곡(別曲)으로 변했네.
 直變淒涼別曲新.
 (제14수)
- ② 영산회상(靈山會上)과 보허사(步虛詞)
 靈山會像步虛詞,
 이전의 악곡은 고아한 풍격을 숭상했네.
 樂闋從前尚雅規.
 별곡(別曲)과 신번(新翻)은 어떤 내용인가
 別曲新翻何意旨?
 모두 남녀가 그리움 부친 거라네.
 攄然男女寄相思.
 (제15수)
- ③ 도성의 아이들 길 가를 막고 섰는데
 都中童豎攔街傍,
 시조(時調) 신성(新聲)에 장단(長短)이 섞여 있네.
 時調新聲雜短長.
 봄바람 불고 꽃피는 곳에서 듣는데도
 聽在東風花發處,
 되려 낙엽에 찬 서리 울리는 듯하네.
 翻如落木響寒霜.
 (제17수)

위의 세 작품은 이 시기에 이르러 시가의 유행이 뚜렷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①에서 ‘처량하다’고 한 것이나 ③에서 ‘낙엽에 찬 서리 울리는 듯하다’고 한 것은 모두 이 시기 시가의 정조가 종전의 우아한 기풍과는 달리 구슬픈 사랑노래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규상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전의 유자(儒者)들과 같이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이는 이규상이 관찰자의 시선에서 서호의 유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시가의 변화가 18세기 중 후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이규상은 다음과 같이 시조 두 편을 한역하여 죽지사에 삽입하였다.²⁷⁾ 앞에서 살핀바 무가를 삽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행하는 노래를 그대로 번역하여 실음으로써 대상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① 남산 위에 비가 막 지나니 수각교(水閣橋) 가운데 물결이 가득하네. 깊고 고요한 한밤중 되거든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 깔깔대며 맞이하리.	南山上面雨新過, 水閣橋中水滿波。 會待沈沈清夜半, 奴家來客哂呵呵。 (제18수)
---	--

미련한 정에 잠 못 들어 방 창가에 기대니 하늘에 추위 남았는데 달빛이 가득 돌렀네. 동녘 땅 봄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그 정이나 내 맘이나 한가지로 같아라.	情癡無寐倚房櫳, 玉宇餘寒月滿籠。 東地東風啼去鴈, 渠情儂意一般同。 (제19수)
--	--

18세기 한강변은 유흥을 즐기는 풍류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누정(樓亭)은 풍류를 즐기기에 좋은 공간이었고, 기생과 악공을 싣고 강바람을 맞는 뱃놀이는 풍류객들의 피서 방식이 되기도 했다. 풍류와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풍류문화가 발달한 한강변에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이 활발하게 연주되었다. 다음 시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서강에 건들대는 젊은이 얼마나 많은가 피리 불고 거문고 타고 통소도 부네. 마음 내키면 곧바로 선상연(船上宴)을 벌이니 장악원(掌樂院) 악사를 멀리까지 오게 할 필요 있으랴.	西江幾箇少年驕? 吹笛彈琴又弄簫。 意到便成船上宴, 寧須樂院倩來遙? (제13수)
--	--

27) 제19수 아래에 “이상 2구(句)는 모두 시조 별곡이다.”[以上二句, 皆時調別曲]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여기서 ‘2구’는 제18수와 제19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서호죽지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규상의 「서호죽지가」는 18세기 한양 서호 지역의 풍속을 세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18세기 경강 지역의 생활상이나 정서, 풍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드문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18세기 중후반 경강 지역의 풍속과 세태를 증언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죽지사나 약부풍으로 특정 지역의 풍속이나 민간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한시가 대량으로 출현하여 뚜렷한 시적 경향을 이룬 것²⁸⁾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호죽지가」는 이러한 한시사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작품이면서, 지방이나 변방의 풍속을 노래한 작품들과 달리 도시의 강가라는 새로운 공간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서호죽지가」는 당시 도성에서 시조가 유행했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록 큰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서호죽지가」 중 유행하는 음악의 변화를 읊은 작품들은 시가사적 관점에서 추후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28)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383면.

참고문헌

1. 자료

李奎象, 草稿本 『一夢稿』, 후손가 소장본.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2. 논저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안준석, 『이규상(李奎象)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과 입전 의식』, 서울대 석사논문, 2015.

이상순, 『서울새남굿 신가집』, 민속원, 2011.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下, 동문선, 1991.

[부록] 「西湖竹枝歌」 원문 및 번역

제1수

서호(西湖) 가의 장정들 모두 배를 몰아
일 년 중 태반은 바다를 떠도네.
벌어들인 돈으로 큰 집 지을 수 있지만
젊은 아낙 몇 번이나 망원루(望遠樓)에 기대나.

湖上丁男盡操舟,
一年強半海中遊.
利錢縱得起高屋,
少婦幾憑望遠樓?

제2수

봄바람이 장사하는 남편의 배를 불어 보내더니
10월에야 호남(湖南)에서 소식이 전해오네.
듣자하니 쌀을 사서 배로 바꾸는데
집에 돌아오는 건 다시 내년이 되어야 한다 하네.

東風吹送商夫船,
十月湖南消息傳.
聞道買租轉買布,
回家更指在明年.

제3수

낭군의 편지 거짓으로 길이 험하다 말하고
큰 배에 실은 황금 백 환(鏹)이 넘는다 하네.
도처에 돈 좋아하는 어여쁜 여인들 있으니
어찌 집에 망부산(望夫山)이 있는 줄 알랴.

郎書虛說路間關,
大船黃金溢百鏹.
到處可憐愛錢女,
豈知家有望夫山?

제4수

강가 여인의 청춘 물처럼 흘러가는데
그리움은 바다구름 끝에 아득하네.
자기는 해마다 동서(東西)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문 밖 꽃을 구경하는 것도 타이르네.

流水青春江上娃,
相思杳杳海雲涯.
自家歲歲東西轉,
猶戒農看門外花.

제5수

남편의 편지가 푸른 바다 끝에서 전해왔는데
참전복 한 꾸러미 함께 왔네.

夫婿書傳碧海端,
伴來參鮓一苞團.

마을의 속언(俗言) 그대는 못 들었소
마주 앉아 먹으면 고비 뿌리도 달다고.

里中諺語君聞否?
對喫薇根亦自歡.

제6수

서강(西江)의 제자(弟子) 얼굴이 꽃 같은데
버들고리 분주히 굽으며 묘한 노래 부르네.
매양 노래 첫머리에 마노라[抹樓下]를 끌어와
인간세상 사생(死生)의 정을 다 말하네.

西江弟子顏如英,
攄篋撚繁妙唱橫.
每引歌頭抹樓下,
摠言人世死生情.

주: 서울의 어린 무녀를 ‘계대(契大)라고 일컫는데, 아마도 ‘제자(弟子)의 와언(訛言)인 듯하다. ‘마노라[抹樓下]는 신군(神君)의 존칭(尊稱)이다.
註: 京之少巫, 稱契大, 疑弟子之訛言. 抹樓下, 尊稱神君也.

제7수

강남의 방초(芳草) 푸른빛 가득한데
마노라 오시는 길 호랑나비가 맞이하네.
술이 시내를 이루고 다리는 고기로 대신하니
와서 묵으실 제 꽃송이에서 묵으소서.

江南芳草綠盈盈,
樓下來程虎蝶迎.
有酒成川橋代肉,
願言來宿宿花英.

제8수

가야금 복판(腹板) 동이처럼 둥근데
은행나무로 기러기발 꺾고 대나무로 발(撥) 걸었네.
열두 개의 줄을 가녀린 손으로 고르니
마노라가 줄마다 강림하네.

伽倻琴腹盎同圓,
銀杏磨槽竹撥懸.
十二朱絲纖手整,
抹樓來降逐絃絃.

제9수

성황당 밖에 삐꾸기 우니
마노라 오시는 때 봄 날씨 개었네.
묻노니 새가 우는 건 무슨 뜻인가
묵은 가지에서 새 잎 돋길 재촉하는 거라네.

城隍堂外戴勝鳴,
樓下來時春日晴.
借問鳥鳴何意否?
催教新葉舊枝生.

주: 이상 3수(首)는 계대(契大) 노래의 내용이다.

註: 以上三首, 皆契大歌意.

제10수

새남터 앞에 봄 물결 잔잔한데
금성당(錦城堂) 밖에 달이 막 떴네.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들 온 강가에서 나오니
꽃피는 때에 맞춰 굿이 이루어지리라.

塞攬墟前春水平,
錦城堂外月初生.
明粧女伴傾江出,
其趁花時賽祭成.

제11수

혜나무 그늘 드리운 곳에서 버들고리 굵고
허공에 백지(白紙) 사르고 술잔 올리네.
“선주(船主)가 내일 아침 남해로 떠나니
면화와 붉은 팥이 돌아오는 전대에 가득하길.”

槐陰垂處櫂檉筐,
白紙焚空薦酒觴.
船主明朝南海去,
綿花紅豆滿歸囊.

제12수

해마다 서울은 유행이 바뀌니
강 사람들 탐내며 힘써 서로 다투네.
올봄에는 흰모시 홀치마가 유행이니
장사하는 남편에게 곱고 가벼운 것 사오라 부탁하네.

每歲京城時體更,
江人偷得務相爭.
今春白苧單裳重,
囑與商夫質細輕.

제13수

서강에 건들대는 젊은이 얼마나 많은가
피리 불고 거문고 타고 통소도 부네.
마음 내키면 곧바로 선상연(船上宴)을 벌이니
어찌 장악원(掌樂院) 악사를 멀리까지 오게 하라.

西江幾箇少年驕?
吹笛彈琴又弄簫.
意到便成船上宴,
寧須樂院倩來遙?

제14수

악부(樂府)와 삼현악(三絃樂)이 사람을 가장 감동시키고
번다한 음률과 느릿한 곡조 또한 정신을 미혹시키네.

樂府三絃最動人,
繁音曼調也迷神.

옛 격조가 유행과 어긋나는 것을 꺼려
곧바로 처량한 새 별곡(別曲)으로 변했네.

猶嫌古格違時好,
直變淒涼別曲新.

제15수

영산회상(靈山會上)과 보허사(步虛詞)
이전의 악곡은 고아한 풍격을 숭상했네.
별곡(別曲)과 신번(新翻)은 어떤 내용인가
모두 남녀가 그리움 부친 거라네.

靈山會像步虛詞,
樂闋從前尚雅規.
別曲新翻何意旨?
攄然男女寄相思.

제16수

그리움을 털어놓고 이별을 원망하니
구차한 삶에 감정이 지극해지는 건 이치상 당연한 것.
승가(僧歌)의 염불조(念佛調)가 으뜸이니
약한 마음에 그 소리 닿으면 슬픔 가누지 못한다네.

相思說盡怨睽離,
情極淪生理所宜.
最是僧歌念佛調,
弱腸聲觸不堪悲.

제17수

도성의 아이들 길 가를 막고 섰는데
시조(時調) 신성(新聲)에 장단(長短)이 섞여 있네.
봄바람 불고 꽃피는 곳에서 듣는데도
되려 낙엽에 찬 서리 울리는 듯하네.

都中童豎攔街傍,
時調新聲雜短長.
聽在東風花發處,
翻如落木響寒霜.

제18수

남산 위에 비가 막 지나니
수각교(水閣橋) 가운데 물결이 가득하네.
깊고 고요한 한밤중 되거든
우리 집 오시는 손님 깔깔대며 맞이하리.

南山上面雨新過,
水閣橋中水滿波.
會待沈沈清夜半,
奴家來客哂呵呵.

제19수

미련한 정에 잠 못 들어 방 창가에 기대니
하늘에 추위 남았는데 달빛 가득 들렀네.

情癡無寐倚房櫺,
玉宇餘寒月滿籠.

동녘 땅 봄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東地東風啼去鴈,
그 정이나 내 뜻이나 한 가지로 같아라.	渠情儂意一般同。

주: 이상 2구(句)는 모두 시조 별곡이다.

註: 以上二句, 皆時調別曲.

제20수

뱃소리와 뱃노래는 모두 처량하니	帆唱棹歌盡淒涼,
그 속에서 정리(情理)를 깊이 생각하네.	箇中情理細思量。
비바람 몰아치는 큰 바닷길이라	風風雨雨滄溟路,
뱃사람들 만사장(萬死場)을 오가네.	來往人從萬死場。

제21수

상인들 만나면 고생을 말하니	賈客相逢說苦辛,
모두 강호(江戶)에서 온 빚진 사람들이네.	盡從江戶負錢人。
만약 교궁(蛟宮)의 눈물을 대신 흘린다면	若爲替下蛟宮淚,
만 곡(斛)의 명주(明珠)로 가난을 쓸어버릴 텐데.	萬斛明珠掃去貧。

제22수

삿대 잡고 하루 종일 배의 키를 살피느라	持篙鎖日瞰船箕,
검은 머리 뱃사공 수염이 허영게 세었네.	靑髮長年到白鬚。
사납고 파도치는 바다가 좋아서가 아니라	鱔海鯨山非獨喜,
한 식구 입에 풀칠하려면 한 사람 위태로울 밖에.	一家糊口一人危。

제23수

삿갓 쓴 강 늙은이 흰머리 쇠잔한데	芦笠江翁白髮殘,
작은 배에 낚싯대 펼치고 명탄(鳴灘)을 내려가네.	小舟張釣下鳴灘。
일평생 떠돌이라고 사람들아 비웃지 마소	生涯破落人休笑,
왕년의 만호(萬戶) 관원 많으니.	多是當年萬戶官。

제24수

노쇠한 누런 얼굴 갈대꽃처럼 센 머리	婆娑黃面髮芦花,
빨래하는 노파 방망이질 쇠잔한데 앙상한 버들 늘어졌네.	浣嫗砧殘禿柳斜.
여자아이 다음 일인 줄도 모르고	兒女不知次第事,
얼음 같은 살결 물에 비추며 스스로 뽐내네.	氷膚映水自矜姸.